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20. 2. 16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패널 : 장준호 작가

김인선 : 오늘 날씨도 이렇게 안 좋은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이 권혜성 작가님이시고, 저기 계시는 작가분이 장준호 작가님이십니다.

권혜성 : 안녕하세요. 권혜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장준호 : 안녕하세요. 장준호입니다.

김인선 : 먼저 장준호 작가님이 왜 여기에 앉아 계시는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전시를 시작할 때 사실은 장준호 작가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어요. 장준호 작가님이 워낙 권혜성 작가님 작업을 잘 알고 계셨고 이 작가님이 오랫동안 전시를 안 하고 계셔서 그 능력을 아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혜성 작가님에 대해서 듣고 이미지를 보다 보니깐 제가 아는 작가님인 거예요. 처음에 작가님을 알게 된 건 윌링앤딜링의 젊은 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이 통해서였어요. 지금은 더이상 하질 않는데 기획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손주영 작가님이 기획자로 참여해서 젊은 작가들로 구성해서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참여하셨던 작가셨더라고요.

어제 토크 준비를 하면서도 그 훨씬 전에 이 작가님 학생 때 작업을 본적이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크리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제가 담담을 하고 이야기를 한 작가는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작가님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시에서 작업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저는 끼워 맞추고 싶었고 그런 작가님과의 인연을 가지고 드디어 저희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개인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장준호 작가님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면서 진행될 거고요. 두 분의 대화를 엮어갈 거고 관객의 대화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권혜성 :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들은 2018년도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을 때 태풍이 크게 왔었어요. 제주도를 치고 갈 때 구경하면서 동영상 찍은 건데, 이때 소스들이 지금 작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태풍을 보면서 자연의 에너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인선 : 지금 전시를 보면 물의 이미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물이 훑날리는 풍경도 있고, 굉장히 굽이치면서 흐르는 느낌도 있고, 바람에 의해 물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이미지 등 전반적 소재인 자연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혜성 : 일단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가장 밀접하게 느끼고 많은 생각이 나게 했던 것들을 하고 싶었고, 그때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도시 생활과 완전히 멀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나가서 바다에 누워있는 다넉가, 수영을 매일 한다넉가 혹은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오더라도 그 순간에도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주제로 잡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가까이 있던 것들,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김인선 :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저 영상의 태풍이 치고 파도가 막 치는 장면은 작가님이 저한테 말로 설명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주도는 워낙 바람이 세서 태풍이 부는 날 바닷가에 가면 집채만한 파도가 실제로 눈앞에 오는데, 그게 바람이 너무 세니까 파도가 넘어오면서 하늘에서 물이 흘러진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게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니 저걸 꼭 해보려고 태풍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작가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특별히 느끼고 감정이 대입되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시원한 마음이 들겠구나 싶은데, 작가님이 작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풍경을 접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안 했던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또 그동안 무얼 하셨는지 여쭙보고 싶어요.

권혜성 : 졸업을 2008년도에 하고 10년 동안 작업을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냥 자신도 없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으라고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했어요. 과외도 하고 잠깐 외국 나가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보고 벽화도 하고 방과 후 선생님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가진 재능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의 시간이 있어서 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중간에 개인전을 짧게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잠깐 준비해서 하고 그 앞뒤로는 거의 작업이라기보다는 낙서 정도의 작업만 했어요.

김인선 : 그때 우리랑 전시 했었던 건 혹 낙서 개념일까요?

권혜성 : 낙서한 것도 한 두 달 정도 손주영씨가 하자고 해서 준비했어요.

김인선 : 제가 그래서 작가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장준호 : 제가 권혜성 작가님을 2년 전에 처음 봤어요. 그때도 작업을 안하고 계셨어요.

김인선 : 그런데 어떻게 작가님의 훌륭한 점을 캐치했어요?

장준호 :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아름지기라는 기관에서 문화유산관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한옥에서 단아한 옷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뵙고 작업을 하시는 분인지는 몰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험블한 액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들고 와보시라 이래서 봤는데 그때 작업실에서 험블하게 펼쳐신 그림이 요 그림이랑 여기 걸려있는 소위 작가 노트에서 읽히는 투명한 어둠에 관한 그림이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김인선 : 워낙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라 좋아하셨을 듯 해요. 흰색 여백에 그려진 저런 드로잉 자체도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드로잉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전시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준비하고 계셨던 다른 공간에서의 전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랑 다행히도 만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참고로 장준호 작가님은 나무를 만지시는 조각가입니다. 액자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고.. 워낙 목공 작업을 잘하시고 손이 맵고, 다재다능하고 작업실이 가까워서 저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작가들끼리 서로 재주가 있는 걸 잘 아니까 액자 요청 이런 것도 하죠. 전문은 아니지만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작가이십니다. 나중에 작품을 보실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갤러리하고도 전시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기획하셔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 주셨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시였죠. '아트톡 윌링앤딜링' 찾아보시면 장준호 작가님과 대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권혜성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예전에 하셨고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준호 : 그 전에 제가 얘기를 끝맺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작가님 작품을 안 지가 몇 개월밖에 안됐고 그다음부터 권혜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권혜성 작가님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권혜성 작가님과 저 사이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알고 보니 권혜성 작가님 뒷담화를 듣게 될 계기가 있었거든요. 뒷담화를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너무 흥미로운 캐릭터더라고요. 공통으로 나오는 건 잘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그리고 방랑자. 히피 요런 이미지가 많았고, 그리고 다른 대체적인 의견이 감수성이나 실력, 필력 그런 게 되게 좋은데, 열심히는 안 하는 몽상가. 보통 작가들도 너무 나가면 작업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너무 나가는 느낌의 캐릭터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이상입니다.

권혜성 : 작업이라기보다는 제가 10년 동안 쉬면서 뭐 그랬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아도는 종이에 짙은 짙은 그리는 게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화를 좋아해서 이런 캐릭터들을 그렸어요. 애를 가지고 졸업작품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작업하지 말고 일하면서 무엇이 있을지 찾아 봐야지 생각하면서 이때부터는 캔버스에 그림을 안 그리고 이런 종이에 드로잉만 하고 그랬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히스토리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김인선 : 전시 활동은 안했는데 그림은 계속 그렸던 거예요?

권혜성 : 1년에 몇 개 조금이요. 전시는 6년전에 개인전 한 번 하고, 작은 전시를 두 번 정도 참여했어요. 어릴 때는 고민이 많아서 우울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가님 어시로 있을 때 개가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거기에 대한 기억으로 드로잉으로 남겼던 거예요. 약간 일기 형식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한강에서 작업들을 연으로 만들어서 페스티벌을 한 번 열고 싶어서 그렸던 에스키스라고 해야할까요. 어떤 연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했던 드로잉이구요. 이때는 단순한 캐릭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때 그러다가 2013년도 정도 됐을 때 망원동에 잠깐 친구 집에 살 때였는데 망원 유수지에 가면 앉아서 한강 뷰를 자주 봤어요. 쪽 보는데 그림을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그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에 한강물이 찰랑하는 걸 봤는데 물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콘트라스트가 센 거예요. 거기서 물결의 어떤 모양을 캐치하게 되면서 저거를 그려볼까 생각했고 물을 좀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야 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2013, 2014년부터 지금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그림 처음 연습할 때 4B연필 이런 걸로 소묘 하잖아요. 검은 색 소재로 그림 연습을 해보야겠다고 생각해서 콘테라던가 목탄

정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 드로잉들은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반 고흐 뮤지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반 고흐 드로잉만 모아 놓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반 고흐의 유화 작품만 좋아하다가 드로잉은 뭘까 하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화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해서 터치나 흐름 같은 게 오는 걸 알고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아예 반 고흐 드로잉들을 아이패드에 저장을 해서 선을 다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의 어떤 드로잉들을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반 고흐 드로잉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의 드로잉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미친 건가.. 어떻게 저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감탄을 했어요. 보는 시각을 많이 키워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 걸 보면서 반성하면서 나름의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뒤집어서 해보야겠다 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까의 작업들로 진행하게 된 거였고요.

이때는 제가 이 작업들을 가지고 14년도에 근처에 있는 갤러리 그리다 라는 곳에서 전시했었습니다. 바다를 많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수집해서 컴퓨터 화면상에 띄어놓고 보면서 많이 그려서 아무래도 몸으로 체감하고 그리는 어떤 에너지보다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만화처럼 단순화시켜볼까. 워낙 만화를 좋아하기도 해서 나왔던 드로잉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첩에 조금씩 드로잉을.. 그때 개인전할 때는 그냥 전시에 자신이 없어서 그림 그리지 말고 다시 돈 벌고 일하고 다른 것도 찾아보아야겠다 하고 그림을 좀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2015년도에 손주영씨가 연락을 주셔서 누나 같이 좀 해보라 해서 장마를 주제로 엄유정 작가님이랑 같이 그림을 서로 교환하면서 했어요.

김인선 : 근데 왜 2014년도에 전시를 하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림이 너무 좋은데..

권혜성 : 그냥 반응도 없고..

김인선 : 많은 젊은 작가들이 아마 전시를 하면 지금부터 나는 작가이고 사람들이 나를 작가로서 봐줄 것이고 앞으로 많은 연락이 올 것이라 기대를 보통 하세요. 개인전을 할 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인전을 몇 번을 해야지만 겨우 작가들 사이에서 먼저, 그 다음에 조금 기획자들 눈에 띄고 그러다가 갤러리, 컬렉터들, 미술관 이런 확장되는 단계가 굉장히 빠른 작가도 있고 아주 느린 작가도 있는데 보통 그 속도에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좌절하셨다가 극복을 하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혜성 :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서 혼자 숨어서 그리고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작가님 작업실에서 일하면서 떨어진 드로잉이 몇 개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아까우니까 전시를 하라고 하셔서 사실 2014년도 전시도 그렇게 이어진 거였어요. 사실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어서 이 전시를 하고 나서 금방 접고 취미로 그림 그리는 사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금야금 전시가 조금씩 연결되고 그랬어요. 이걸 <장마>에 들어갔던 건데 삼각김밥을 사람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생각이 들어서 그린 거고.. 인생의 고단함을 표현했어요. 이걸 <장마> 메인 그림으로 한 번 나갔었는데 직접적으로 장마를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시 끝나고 조금씩 종이 조각 남는 거에 찔끔 그린 것들 시작인데요. 시간 날 때 좀 하고 돈 벌고 놀고 여행 가는 거.. 책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림 그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거는 크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망쳐서 버린 건데, 다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미완성이기는 한데 내가 왜 버렸지 싶어서 넣어봤어요.

이건 손바닥 보다 작은 그림이고요. 이걸 시장 볼 때 뭐 사야지 하면서 그린 거고 어렸을 때도 책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던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에 그리고 1년 안 그리다가 18년도 하반기 19년도 초반기에 제주도에 있을 때 그림을 다시 해볼까 시작할 때 1년 만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이랑 여기 있는 거랑 달라 보여서 어떻게 연결 지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문 뜨문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작업 같은 건 사실 없어요. 이번 작품들도 제주도에 1년 살고 작년 6월에 올라왔을 때 그때도 사실 아는 큐레이터분이 작업 아까우니까 전시하자 해서 '작업이 없는데요' 하니까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든 하게 될 걸' 그래서 4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나왔던 작품들이예요. 저는 꽤 오랫동안 큰 작품들을 안 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되더라고요. 헛산 게 아니었구나.. 보고, 놓고 경험하면서 있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준호 : 보통 그러면 전시가 다들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작업 아까우니까 전시하자 하면서 전시가 이루어진 건가요?

권혜성 : 다 그렇게 됐어요.

장준호 :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권혜성 : 사실 이것도 원래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식물이 너무 좋아져서 조경 쪽으로 배워볼까 하고 공부를 시작하던 와중에 큐레이터분이 제안을 해주셔서 인생 마지막 전시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막상 해보니깐 너무 이창작을 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동안 마음이 힘들고 몸도 아팠던 게 이걸 안 해서 그런 걸까 생각을 많이 하고 깨닫게 돼서 어차피 회사 안 다니고 돈 벌고 사는 거 회사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힘든데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걸 하면서 다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먹게 됐어요.

김인선 : 이 작업을 할 때 되게 음악에 심취해서 들으면서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권혜성 : 그건 엠씨스퀘어 같은 역할인 건데, 엠씨스퀘어 들으면 집중이 잘 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음악들이 있어서 그림 그리면서 맨 정신으로 하기 그래서..

장준호 : 저기 엠씨스퀘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

권혜성 : 신호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들으면 집중력을 향상해주는 기계장치가 있어요. 저한테는 음악이 블랙홀같이 그림 그릴 때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주변에 음악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악 듣는 거나 이런 게 취향이 있기도 했고..

김인선 : 어떤 종류의 음악이에요?

권혜성 : 너무 광범위해서.. 클래식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Aphex Twin 이라고 전자음악 세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듣는대거나 'Fishmans'라고 이 전시의 제목에 들어간 밴드의 음악들, 아니면 Keith Jarrett 등 이것저것이요. 듣다가 이거 꽃힌다 싶으면 개만 들으면서 작업하고 하면서 진행했어요.

김인선 : 여기서 음악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전시 제목이 <Back Beat !>예요. 음악 용어라고 해요. 저도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용어인데,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혜성 : 'Back Beat'라는 게 박자에서 한 박자 두 박자 사이에 하나를 정박으로 껴서 총 네 박자로 만드는 그런 건데, 사실 음악 용어로 가져온 건 아니고, Fishmans의 'Back beat ni nokkatte /バックビートにのっかって' 라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앞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전시 제목으로 따오고 싶어서 붙이게 된 거고요. 음악은 나른하게 흘러가서 물 위에 등실 등실 떠있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김인선 :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장르나 가수의 집중된 전시는 아니죠?

권혜성 : 그건 아니예요. 좋은 기분을 끌고 오고 싶어서 제목을 지었어요.

김인선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극적인 자연 현상하고 많이 연관되고 굉장히 센 바람이 불 때 몸으로 체감했던 기분을 여기에 반영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음악을 체감하는 느낌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혜성 : 그런 것도 있어요. 태풍이 불었을 때 나가서 서 있거나 폭포 앞에서 있거나 할 때, 아니면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몸이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원한 에너지가 몸을 관통하는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소심하고 목소리도 작고 기운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앞에 있으면 힘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음악을 들을 때도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김인선 : 장준호 작가님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외부의 환경에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장준호 : 권혜성 작가님하고 비슷한 감수성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 했던 이유가 작업이 비물질적이잖아요. 저번에 작업 얘기하면서 심상 얘기도 했었는데, 심상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심상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깐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느끼는 머릿속의 상상하는 이미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상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권혜성 작가가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재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비물질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나올까 그게 아주 궁금했거든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의 이러한 몇 번의 질문에 대답을 못 들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고민의 강한 자연의 운동에너지, 음악에 의해 본인이 강해지는 느낌, 을 받는다고 하시길래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해되는 것 같아서요. 아직은 저에게 대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인선 : 너무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장준호 작가님의 결과는 물질적이고 단단하고 구체화된 구현물로 나오는 게

작가님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은 완전 극과 극의 결과물이죠.

장준호 : 완전 극이죠. 저는 권혜성 작가님 같은 작가님을 보면 상당히 질투가 납니다. 저는 되게 자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작업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손에 자신감이 없어요. 짧고 조금씩 터치가 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과감해지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로 저를 표현하려고 하고 저의 근면 성실함, 그런 다부짐, 이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자신감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권혜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춰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인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이 어디서 나올까. 보통 작가들은 근자감에서 그런 자유로움이 나오는데, 오늘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계속 자기 비하 발언 많이 하시고, 작업을 안 하고 끄적거리고 계속 그러시니깐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근자감이 없는 분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에너지가 나올까 했을 때 외부 자연이나 음악에 연동돼서 같이 플로우를 타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움이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혜성 : 사실은 작업할 때 앓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안되면 뭐.. 어차피 종이에 그린 거.. 뒹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쉽게 시원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들 도저런 그림 같은 경우도 30분 안에 그리고 손이 빨리 가는 편이라서, 15분, 30분 내지는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 동안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다섯시간 인터넷 보다가 이제 좀 해야겠다 하면 30~4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김인선 :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드문 것 같거든요. 저도 아주 자신감이 있어서 전시한다기 보다는 해보지 그런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라, 작가님의 경우는 더더욱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대로 맡겨보고 마치 자연의 에너지에 본인의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는 태도라는 생각도 드네요.

권혜성 : 저는 몸을 맡기는 것을 수영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등등 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있어서 굉장히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가 2018년도 제주도에 가서 다시 바다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구멍조끼를 입고도 무서워서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그런데 맘 편하게 물에 떠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흐름대로 등등 있으면서 하늘 보는데, 이건 뭐지 그런 게 좀 생겨서 보통 자연의 현상에 감각을 맡기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김인선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맡기고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작업을 보면 선들이 마구 엉켜있다 하더라도 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런 작업은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저 강물인지 바다에서 등등 떠서 뒤섞여서 얼굴만 나와 있는 상태로 몸을 맡기고 동실동실 하는 느낌이 저렇게 큰 파도가 치는 와중에도 즐거워 보이는 이런 감정 같은 게 느껴지고 작가님 작업이 편안하다는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작가님 태도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혜성 : 그림 그리기 전에 그때의 영상이나 사진 혹은 그런 걸 꺼내 보면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해요. '그때 무슨 기분이었지? 어떻게 완성할까?' 아무래도 그때 느꼈던 기분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느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장준호 : 제가 일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감상자로서 생각, 감정을 많이 가지는데요. 제가 주위들은 바로는 서양화에서 대상을 재현하는 건 대상의 외형을 가지고 외형에 근접한 형상이나 색채를 잡아서

들어가는 반면에 동양화에서 대상을 재현하는 건 붓이 그려내는 먹이 대상을 찾아가는 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주위들은 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권혜성 작가가 비록 대표적인 서양화가인 반 고흐 그림에서 그걸 찾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로잉의 여정이 가는 흔적을 보면 전통적인 서양화에서 시작해서 서양화의 드로잉에서 동양화적인 픽업으로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굳이 옛날에는 서양화가 좋았는데, 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 것이 소중한 것 같아. 나는 동양화해야지 이걸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캔버스를 안 쓰시고 장지에 먹으로 하시는 것도 어쨌든 동양화적인 방법이고 이런 쪽으로 가신 과정을 듣고 싶어요.

권혜성 : 그냥 편한, 돈이 많이 안 들고 잘 다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도 했고 굳이 서양화, 동양화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색을 다루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워서 그러면 검은색 하나라도 잘 써볼까 생각을 했어요. 먹물 이런 걸 쓴다고 해서 필법, 묘법 크게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는 않고 그런 건 내가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선 : 저도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 있어서 자주 헛갈렸어요. 전공이 뭔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끊임없이 서양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재료가 화선지인가 종이인가 작가님이 동양화를 했던가 계속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셨던 기자분도 동양화 전공이나 묘법을 배웠느냐 이런 걸 질문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에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기시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혜성 : 제가 먹물을 이제 쓰면서 누구 것이 유명하지 찾아보면서 영향이라기보다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중국의 치바이스(제백석 齊白石)라는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늦게 하셨어요. 독학으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림이 구상이나 이런 부분이 파격적이고 잘 그린 듯 하면서 못 그리고. 이걸 보면서 경계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거면 누군가는 알아주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림에 대한 자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장준호 : 작가 노트에 검은색이야말로 가장 투명색에 가깝다고 언급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검은 그림이 세 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혜성 : 제가 제주도에 처음 내려갔을 때 밤의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밤에 나가도 환하잖아요. 깜깜한 데가 무섭다고만 생각했지. 어둠에 대해 그런 인식만 있다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밤에 수영하면서 바다를 보는데 달빛이 비쳐서 그런지 어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밤의 어둠, 하늘의 어둠과 바다의 어두운 색깔, 바위의 검은색, 그 외 풀의 색이라던가 이런 게 어떤 어둠의 차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투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어두운 색의 마이너스 같은 요소보다는 어둠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김인선 : 제주에 가서 뭔가 보고 느낀 작가님들의 경우에 꼭 검은색을 언급하세요. 섬 자체의 돌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가님들한테 강렬한가 봐요. 시각적으로 발달하여 있는 사람들이라. 아마 작가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본인의 원래 이 색을 다루는 방식, 검은색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제주도랑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주를 보면 물 있잖아요. 물이 가진 속성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유연하고 흐름에

말기고 어느 그릇이나 모양새를 맞출 수 있는 성향이랑 검은색이랑 작가님이랑 잘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권혜성 :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 물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거의 물에 둘러싸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을 좋아하나.. 술, 커피, 그림까지.. 근데 물이 검은색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김인선 :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기운을 뺏길 것 같으면 검은색 옷을 입으라는.. 점 보시는 분들의 조언도 있고 그래요.

권혜성 : 저는 본능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던 것 같아요.

김인선 : 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물의 세계로 돌아오신..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면서 어느덧 한 시간이 됐는데,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손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길까 합니다.

관객 : 그림을 감상하는데, 그림 안에 얼굴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양화의 느낌이 나는 풍경 안에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들이 숨어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권혜성 : 자신감은 없는데 존재감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정면으로 주인공을 내세우기 보다는 살짝 숨어서 엿보고 그런 애들이 저의 모습을 대변한 것 같아요.

장준호 : 저는 조금 더 그럴 듯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산수화에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건데, 산수화에 산수만 있으면 산수화가 주인공인데, 거기에 1cm 크기의 사람만 있어도 여지까지 그랬던 모든 게 인물의 배경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해석의 계곡을 최대한 피하고자 배경과 전경이 제대로 융합되는 전략을 피하기 위한 작가의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관객 : 보여주시는 캐릭터 그림들을 예전에도 봤었는데,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하시는 스타일, 에너지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캐릭터 그림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요. 혹시 캐릭터 그림으로 다시 작업하신다면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권혜성 :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전개해 나갈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을 넣어야겠다 생각은 해요. 나는 어떻게 차별화시켜야 하고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에 있을 때의 작업들이고, 이제 육지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걸 해야 하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애들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관객 : 연애 캐릭터 들어간 것 멋있었던 것 같아요.

권혜성 : 그건 가을쯤에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요. 돈이 좀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김인선 : 어디서 하실 건가요?

권혜성 : 한강에 난지 가기 전에 연을 날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넓은 잔디에서 본격적으로 연을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작게라도 한 두 개씩 해보고 싶어요.

김인선 : 하실 때 꼭 불러주세요.

관객 : 질문은 아니고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작가님 작업을 음악 없이 처음 봤을 때 저 얇은 선들이 가벼워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굽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림이 본다는 행위에 가까운데, 저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소리와 관련된 드로잉이라고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시원하고 진솔한 드로잉이, 어떻게 그런 드로잉을 하게 됐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작가님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보거나 토크를 하면서 엄청 재미없고,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것에 대해 내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디스플레이할 때도 꾸밈이 있거나 프레임을 가지거나 유리로 뭔가 막으시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혜성 : 바닷가에 태풍이 왔을 때 바다에 가서서 혀를 날름하시면 짠맛이 느껴져요. 꼭 맛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김인선 : 참고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고정 핀 노출이 없잖아요. 앞면에서 안 보이도록 장준호 작가님께서 설치할 때 시스템 제작을 도와주셨어요. 종이를 핀으로 찌를 수도 없고 자석으로 하기엔 너무 거슬리고, 처음에는 집계를 가져오셨는데, 집계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있을 뻔한 것을 장준호 작가님께서 구해주셨죠.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도와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 듯이 진행했는데,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공간 이름 윌링앤딜링이 하고 싶은 걸 다루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술계에 다양한 시스템과 틀이 있는데 그것을 다 경계를 치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걸 해보지 뭐 마음으로 운영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도 용감하게 오픈을 하고 작가들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공간의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 특히 우리 권혜성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흥미진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뵙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